

2026. 2. 6

해외동향부 (제 7374)

■ 주요 뉴스: 미국 12월 구인건수, '20년 9월 이후 최저. 美-이란 화담은 6일 개최 확정

- 백악관, 한국의 관세 인상 시점은 미정. Amazon의 분기 이익은 예상 하회
- ECB와 영란은행, 주요 정책금리 동결. 향후 금리 전망은 다소 상이
- 비트코인, 6.5만달러선 붕괴. 미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규제금융에 회의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부진한 12월 구인건수, 증시 기술주 약세 등이 영향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0.4%], 금리 하락[-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관련 자본지출 부담 우려 등으로 3일 연속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 저조한 기업 실적 등으로 1.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 둔화 및 이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등이 반영
독일은 최근의 역내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70.5원(스왑포인트 감소 시 1471.8원, 0.19% 상승). 한국 CDS 강보합

주요지수					주요지수				
		2/5일	2/4일	전일대비			2/5일	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98.4	6,882.7	-1.23%	국채금리 10y	미국	4.18%	4.27%	-9bp
	유럽	611.65	618.12	-1.05%		독일	2.84%	2.86%	-2bp
	중국	4,075.9	4,102.2	-0.64%		영국	4.56%	4.55%	+1bp
	일본	53,818	54,293	-0.88%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5,163.6	5,371.1	-3.86%		중국	43bp	44bp	-1bp
	달러지수	97.97	97.62	+0.36%	위험지표	EMBI+	-	261	-
유로화	1.1777	1.1807	-0.25%	VIX		21.77	18.64	+16.79%	
환율	엔화	157.04	156.86	-0.11%		WTI유	63.21	65.14	-2.96%
	위안화	6.9384	6.9439	+0.08%	원자재	구리	582.1	585.0	-0.50%
	원화	1,469.0	1,450.2	-1.28%		금	4,779.1	4,964.9	-3.7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2월 구인건수, '20년 9월 이후 최저. 美-이란 회담은 6일 개최 확정

- 작년 12월 구인건수는 654.2만건을 기록, 전월(692.8만건) 및 예상치(720만건)를 하회. 모든 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기업서비스, 소매, 금융 및 의료 부문에서 감소폭이 확대. 시장에서는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신규 고용을 줄이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Pantheon Macro Economics)
- 고용 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1월 기업들이 발표한 해고는 총 10.8만건으로 전년동월비 118% 급증. 이는 1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이후 최대 수준. 반면 발표한 신규 채용은 5300여개로 '09년 1월 이후 최소.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금년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부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
- 1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3.1만건으로 전주 대비 2.2만건 증가했고, 이는 8주 만의 최고치. 시장에서는 최근의 폭설과 혹한, 그리고 연초 변동성이 확대되는 계절적 요인 등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한편, 이란의 아락치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6일 무스카트(오만의 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SNS에 게시.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중동 지역 동맹국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회담 계획 변경을 수용하는데 동의했다고 설명
- 일각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핵무기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자국민 대우 등 폭넓게 여러 의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최종 조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KKR 등 주요 사모펀드 CEO,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 파괴 우려 과도한 수준

-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의 스콧 너털 공동 CEO는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되었으며, 시장은 업계와 관련된 불안에 습관적으로 과잉 반응한다고 언급. Ares Management의 마이클 아루게티 CEO도 AI로 파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계 비중은 매우 작다고 주장.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불안으로 관련 산업에 투자해 온 사모펀드들의 주가가 급락

■ 백악관, 한국의 관세 인상 시점은 미정. Amazon의 분기 이익은 예상 하회

-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對韓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언. 다만 백악관의 무역팀이 신속하게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첨언
- Amazon의 분기 매출은 2133억달러로 예상치(2113억달러) 상회했으나, 주당 순이익은 1.95달러로 예상치(1.97달러) 하회. 이와 함께 금년 대규모 투자(2000억달러)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9%대 급락

■ ECB와 영란은행, 주요 정책금리 동결. 향후 금리 전망은 다소 상이

- ECB는 주요 정책금리(수신금리 2.0%, 리파이낸싱금리 2.15%, 한계대출금리 2.4%)를 모두 동결한다고 발표. 중기적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연율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이 적절한 상황이라고 평가
- 시장에서는 물가 및 경제 성장을 고려할 경우 ECB가 당분간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S&P 글로벌). 스왑시장에서는 단기간 내 0.25%p 추가 인하 가능성을 20% 수준으로 제시. 일부에서는 최근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경제 지표가 강조되었다면서 당국이 다소 매파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분석
- 한편, 영란은행도 금리(3.75%)를 동결하기로 결정. 베일리 총재는 경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50% 가량이라고 제시.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지만, 9명의 위원들 가운데 4명이 0.25%p 인하 의견을 피력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4월 정도에 금리인하로 선회할 수 있다고 예상(JPMorgan)

■ 비트코인, 6.5만달러선 붕괴. 미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규제금융에 회의적

- 비트코인 가격이 6.5만달러 아래로 급락(Binance 기준). 레버리지 매수 포지션 청산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매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 특히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금융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암호화폐 자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기술주 매도 확대, 닷컴 버블 붕괴 전과 유사. 투자자 주의 요구 - Financial Times

(It's not just a tech sell-off)

- 최근 증시에서 기술주 매도가 심화. 한편, 저평가 가치주 주가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등 주도주 역전 현상이 일부 발생. 현재 전체 지수의 변동 폭은 크지 않지만, 고수익 기대 성장주 재투자 등의 투자자 집착은 종식된 것으로 판단
- 이는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수개월 전과 유사한 상황. 당시 성장주 투자 성과는 1999년 하반기까지 가치주를 압도했지만, 2000년 2월 주도주 역전(성장주→가치주) 현상이 발생. 그리고 3월 전체 지수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 9월부터 본격적인 급락 시작. AI 붐은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 닷컴 버블과 다르지만, 시장 변동성 지속 시 투자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

■ 글로벌 무역, 트럼프 관세정책에도 낙관 전망 기대가 합리적 - Financial Times

(There are good reasons to be cheerful about global trade)

-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으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그러나 해당 사안이 글로벌 무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근거는 부족. 이는 트럼프 관세정책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고, 각국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기 때문
- 실제로, 중국의 제3국 경유 환적에 대한 미국의 40% 관세 부과 시도 효과는 미미. 또한 대부분의 여타국은 미국의 전면적 보호무역 조치와 상이한 정책을 선택. 기업의 경우도 관세, 현지 생산 의무화 등에 대한 불안인식이 개선. 이에 글로벌 무역은 충격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정 능력이 있음을 확인

■ 중국의 경기부양책, GDP 목표 하향 조정 징후로 기대보다 소규모일 가능성 - 블룸버그

(China Signals a Trimmed GDP Growth Target, Requiring Less Stimulus)

- 3월 전인대의 '26년 성장률 목표 공식 발표에 앞서 31개 성(省) 중 12개 이상 지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자체 성장률 목표를 하향(1월말 기준). 이는 중앙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
- 한편, 중국 정부는 외부 충격 발생 시 부양책으로 피해를 상쇄할 수 있으나, 수출 혼풍이 계속된다면 내수 부진 용인할 가능성(Macquarie). 금년 부양책은 1조위안 규모의 재정지출, 20bp 금리인하, 0.5%p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본 예상이 아닌 의미 있는 상한선이 될 것으로 추정(Citi)

- **유로화의 국제화, 통화 스와프·공공채권 확대를 통한 위험 분담이 필요 - Financial Times**
(Bringing euros to a weaponised currency fight)
 - 중국 시진핑 주석의 위안화에 대한 기축통화 지위 언급은 글로벌 통화 패권 경쟁의 본격화를 의미. EU 역시 달러화 의존도 감소와 유로화 국제화를 추구해 왔지만, 이를 위한 근본적 조치에는 소극적. 향후 중국이 자본 자유화 등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 나설 경우, 유로화는 2위의 통화 지위마저 위협받을 가능성
 - 유로화의 국제적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ECB의 통화 스와프 라인을 제3국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이는 위기 국면에서 타국 금융시스템에 유로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유로화 결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EU 차원의 채권 발행을 확대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대차대조표를 제공할 필요. EU는 위험 분담을 꺼려 왔지만, 지정학적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유럽의 경우 위험 공유가 곧 위험을 줄이는 방법
- **미국의 연초 고용 부진과 해고 계획 증가, '26년 암울한 노동시장 예고일 가능성 - WSJ**
(Weak Hiring, Layoff Plans Paint a Gloomy Labor-Market Picture)
-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 성과, 부정적 영향 불구 양호한 경제 성장이 올바른 판단 - WSJ**
(Are Trump's Tariffs Winning?)
- **미국 신용시장, 투명성 부족 및 잠재적 위험 확산 가능성 등이 우려 요인 - 블룸버그**
(Credit Market's Reality Check Follows Decade of Loose Lending)
- **미국 주택가격 부담 완화, 노동시장 개선과 저소득층 소득 증대가 관건 - 블룸버그**
(Affordable Housing Starts in the Labor Market)
- **미국의 극심한 한파, 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막대한 비용 요구를 시사 - 블룸버그**
(Extreme cold is a billion-dollar problem,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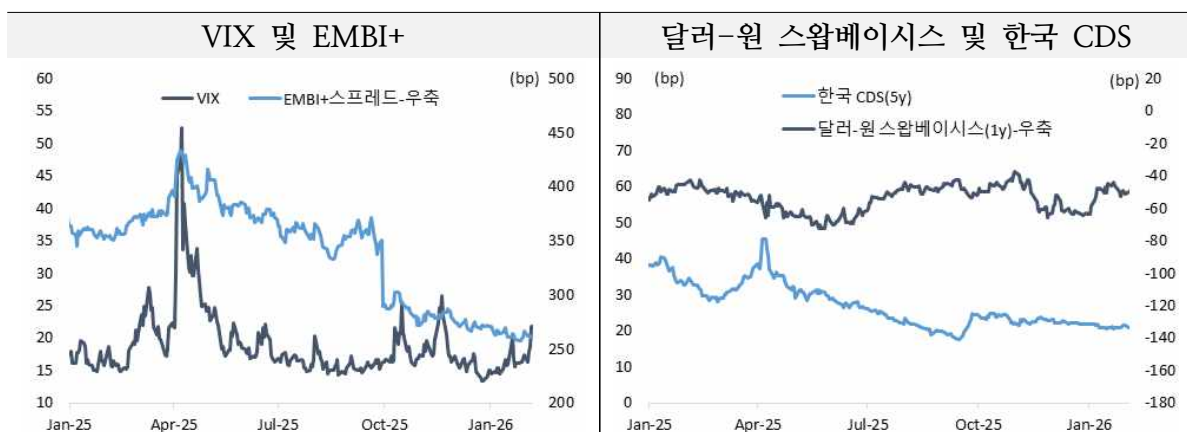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